

■ '5·18 30년 복수극' 김무정씨 스토리

“어찌 슬픔과 한을 다 잊겠습니까
이제 그를 죽이는게 의미 없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안 것뿐이죠”

#1 시작되는 비극

1980년 5월23일 오후 3시. 광산군 신촌리 동부과출소 앞에서 형진씨 는 신상사와 마주친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그는 당시 나주와 영암 일대에서 염소와 닭 등 가축을 사들인 뒤 다시 광주지역 시장에 내다 팔았다. 밭이든 썩 괜찮았고, 결흔을 약속한 여인도 있었다.

형 무정씨의 집에서 살던 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도 어수선해 잠시 고향 나주로 몸을 피하기로 했다. 나주의 길목인 송정리에 가면 차를 탈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송정지역

를 타고 달아났다. 무정이 복수를 결심한 것은 바로 이날이었다. 신촌리 주민들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했고, 양동시장에서 대검도 샀다. 며칠 후 신촌리 신상사의 집으로 쳐들어가기 위해 동생 형식을 은밀히 운암동 집으로 불러 들였다.

#3 뭉거품 된 첫 번째 복수

1980년 6월1일 밤 10시. 신상사의 집이 있던 광산군 신촌리 일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광주 도심에 지근던 계엄군은 물러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초저녁부터 집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명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은 있었다. 신상사는 5·18과 관련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소준열, 전두환이 똑같은 놈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들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니... 신상사는 핏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몇 달 만에 풀려나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다시 대검을 사 밤마다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5 계속되는 추적

1983년 11월4일. 조선대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동생 형진씨가 3년여만에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80년 당시의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폐 손상으로 숨졌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무정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듬해 아버지도 화병으로 눈을 감았다.

1984년 봄, 무정씨는 집안에 숨겨 두었던 신상사의 기록을 꺼내들었다. 신상사의 고향 주소가 눈에 들어왔고, 직장에 휴가를 냈다. 대검과 신상사를 죽인 뒤 자살할 때 쓸 극약을 군용 배낭에 넣고 발열차에 올랐다. 신상사의 부어 고향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신상사의 동생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을 찾아냈다. 하지만 신상사의 동생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다. 무작정 신상사의 고향집에서 3일을 머물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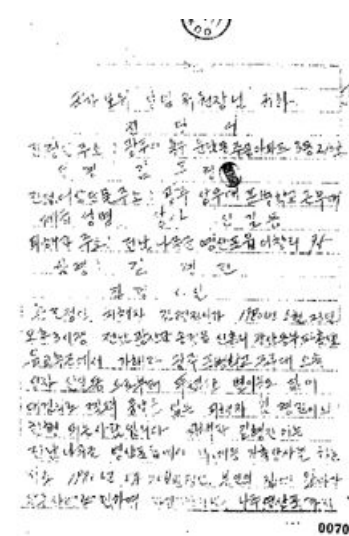
1998년 우연하게 신상사가 살고 있다는 곳을 알아낸 무정은 대전시 유성구 송광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지만 이미지도 잘못된 주소였다.

#6 슬픔도 한도 이제는...

“내애와 먹고살고 2남3녀를 키우다 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분노와 적개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늙은 몸만 남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법으로도, 칼로도 신상사를 죽이지 못했던 무정씨에게 남은 것은 운명에 든 골병뿐이었다. 협심증, 고지혈증, 지방간 등 성한 곳이 없다. 다니던 직장을 1996년 명예 퇴직 해 살림도 넉넉하지 못했다.

형진씨는 지난 1990년 10월 5·18



김무정씨가 “동생을 죽인 계엄군을 처벌해 달라”며 1980년 8월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진정서.



김무정씨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동생 김형진의 묘 앞에서 슬픔에 잠겨있다. 김씨는 “부여군 임천면 출신 신상사가 김형진을 죽였다”는 내용을 동생의 묘비 뒷면에 새겨넣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 폭행에 항의하던 29살 동생

신상사 대검에 4차례 쫓겨 3년후 사망

일대 교통도 두절돼 있었다.

이날 그가 동부과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과 10여명의 주민이 길가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육군포병학교 남재준 상사와 사병 2명이 숨에 취해 쓰러진 마을 주민을 일으켜 세우고 있던 중이었다. 형진씨도 주민들과 함께 이를 구경했다.

잠시 후 오토바이 굉음이 들려왔고, 작검한 칼빈소총을 어깨에 맨 신상사가 이들 앞에 나타났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신상사는 “너희 모여서 뭐해”라고 소리치며, 소총 개머리판으로 다짜고짜 주민들의 머리와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스물아홉, 혈기 왕성했던 그는 참지 못하고 “좋은 말로 하라”며 신상사에게 항의했다. 신상사는 소총 끝에 매달린 대검을 형진씨의 목에 겨누었다.

겁에 질린 그는 길 건너편 전복간이 음식점(현 화신은행) 안으로 달아났다. 뒤쫓아 온 신상사는 작검한 소총을 뺀어 주방에 숨어 있던 형진의 가슴과 배를 각각 한 차례씩 쏘았다.

형진씨는 신상사를 피해 식당 뒷문으로 달아났지만 깊은 상처를 입어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다. 신상사는 자신을 만류하는 남상사와 사병들을 밀치고 형진씨를 쫓아왔다. 신상사는 전복간이음식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방계산 자락(현 송정공원 인근)에 쓰러져 있던 형진씨의 등과 배를 2차례 더 쏘았다. 중상이었다.

김무정(당시 36세)씨는 넷째 동생 형식(27)씨와 힘겨나 쓴다는 동생의 친구를 앞세우고 마을에 도착해 이종사촌형(50)의 집으로 향했다. 사촌의 도움을 받아 신상사의 집을 찾아내기 위해 서였다. 무정 일행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있었다.

이날 오후 복구 운암동 무정씨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신상사에 대한 복수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대검은 무정씨가 준비했고, 형식씨는 신상사가 총이나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에 대비해 날랜 친구를 데리고 왔다.

당시 35여 가구가 모여 살던 신촌리에는 장교 사택(현재 중도아파트 부지)과 하사관 사택(송정동초등학교 부근)이 있었으며, 20여 명의 하사관이 제각각 마을에 세들어 살았다.

신상사가 세들어 살고 있다는 집을 찾은 일행은 손살같이 방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인기가 없었다. 급하게 집을 빠져나간 듯 방 바닥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자신의 집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무정 일행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신상사가 아내,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이를 데리고 급히 도망간 뒤였다. 며칠 동안 상무대(현 상무지구 인근) 부대 안에 머물렀던 신상사는 집을 아

‘1차 거사’ 실패후 법에 매달려

살인미수 아닌 중상해죄 미약한 처벌

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무정씨의 첫 번째 복수는 뭉거품으로 돌아갔다.

#4 미약하기만 한 법적 처벌

1차 ‘거사’가 실패한 뒤 무정은 법에 매달렸다. 무고한 시민을 죽인 신상사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같은 해 6월, 그는 소준열 전 부교육사 사령관에게 2통의 진정서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는 다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2차례 탄원서를 보낸 뒤에야 헌병대에서 신상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그의 집으로 도착한 ‘제233부대 헌병 29호’ 공문에는 “신상사를 형법 258조2항(중상해)에 의해 구속했고, 8월9일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살인미수’가 아닌 ‘중상해’라는 죄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무정씨는 5월 관련 단체나 행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유족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2005년 습자자 보훈청에서 보내주던 5·18 초대장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초대장이 없어 정자 행사장에도 들어갈 수 없죠.”

최근 풍문을 통해, 신상사가 대전 인근에서 폐지를 주위 번 돈으로 불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근황을 들었지만 더는 칼을 들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신상사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공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어이없는 소식에도 그는 가슴만 쓸어내려야 했다.

“어찌 슬픔과 한을 모두 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늙어, 그를 죽일 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안 것뿐이죠. 다만 신에게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기만을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olutionPartner (LG Chem) featuring an image of two people riding a bicycle on a globe. Text includes 'SolutionPartner', '58', and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보필하는 솔루션파트너 - LG화학'.